

0. 들어가기

이 발표문은 만주어와 한국어에 나타나는 동사 어간의 동형성에 주목하여, 두 언어 사이의 계통적 관련성에 대한 귀중한 예들을 제시하고, 이들을 이용한 한국어사 연구의 가능성을 탐색함으로써 국어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풍부하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전반적으로 훌륭한 발표문의 내용과는 별개로, 아래의 몇 가지 기술은 오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먼저 밝혀 적는다.

(1) “만주어는 여진어의 한 갈래라는 것 이외에 뚜렷한 언어학적 계통이 밝혀지지 않은 언어이다.” (발표문 1쪽)

만주어는 계통적으로 Ewen, Ewenki, Solon, Negidal, Nanai, Uilta, Ulchi, Udihe, Orochi, Sibe 등의 언어와 함께 만주-통구스어족(Manchu-Tungusic)에 속하는 것이 확실하다. 다만 만주어와 다른 통구스어 사이의 차이점은 상당 부분 인접한 한어나 몽골어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池上二良 1978, 박상철 2020).

(2) “한국어와 만주어는 둘다 교착어에 속하는 언어라는 공통점 이외에도 계통, 지리, 혈통적으로도 역사 시대를 통틀어 매우 인접해서 공존해 언어인 한편 조사와 어미의 발달 체계가 여타의 교착어들에 비해 한국어와 현저한 유사성을 띠고 있는 언어이다. 만주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뚜렷한 비교 대상 언어가 없는 한국어의 연구에 다양한 종류의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발표문 1쪽)

소위 알타이어족(Altaic) 가설을 지지하는 선행연구는, 동원어(cognates) 및 언어구조적 특징을 비교한 결과, 일관되게 한국어와 일본어의 밀접한 관계, 즉 두 언어(또는 어족) 사이의 상대적으로 늦은 분기를 지적하고 있다(Starostin et al 2003, Robbeets & Bouckaert 2018, Blažek et al. 2019, Hübler 2020 등). 이러한 선행연구의 계통적인 분기를 고려한다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만주-통구스어 공통조어 및 한국어-일본어 공통조어의 재구이며, 그 이후에 두 공통조어 사이의 비교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¹⁾

1. 동원어(cognates)인가 차용어(borrowings)인가

(3) “한민족어와 만주어의 크레올어화가 일어났을 가장 가능한 시기는 아마도 10세기 경으로, 이 시기 신라의 멸망과 함께 신라계 한민족이 여진족이 살고 있던 지금의 만주 지역으로 대량 이주하게 된 것은 이 두 언어가 뒤섞이게 된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 아닌가 한다.” (발표문 1쪽)

1) 그러나 이 발표문이 한국어와 만주어 사이의 유사성을 차용에 의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라면, 이러한 재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4) “본고에서는 이 두 언어가 언어상의 혼효(크레올어화) 과정에서 이러한 동사 어간의 일치를 보일 수 있는 이유 자체를 이 두 언어가 본래 계통적으로 상관이 있는 언어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고자 한다.” (발표문 9쪽)

(3)과 (4)를 종합하면, 발표자는 한국어와 만주어 동사 어간의 일치가 10세기 이후의 ‘크레올어화’의 결과로 보이지만, 이러한 크레올어화는 기본적으로 두 언어가 계통적으로 상관이 있는 언어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현대 영어에서 고유어 foot과 라틴어 차용어 ped- ‘발’이 공존하는데, 이들이 기원적으로는 인도유럽어 공통조어 (PIE)에서 비롯한 동원어(cognates)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한다. 차이점은, 한국어와 만주어는 발표문에서 제시한 107개의 동형어를 제외하고 다른 동사어간에서 체계적인 음 대응 (systematic sound correspondence)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역사언어학에서 이러한 규칙적인 음 대응은 두 언어의 계통적 상관성을 증명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데, 적은 수이지만 귀중한 107개의 예를, 비교적 최근 시기인 10세기의 ‘언어상의 혼효(크레올어화)’에 의한 것으로 기술하는 것은 발표자 스스로 두 언어의 계통적 상관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발표문의 전반적인 논지 전개는 두 언어의 유사성이 10세기 이후의 차용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느끼게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언급은 결국 발표자가 두 언어 사이의 계통적 상관성을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Lee & Ramsey(2011)에서는 만주어와 한국어가 적어도 250여 단어에서 높은 상관성을 보이지만 그 중에는 초기의 문화적 접촉에 따른 차용에 의해 예들(bele~보리 등)이 있기 때문에 두 언어 모두 차용에서 저항을 보이는 동사 어간에서의 일치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밑줄 필자)을 강조한 바 있다.” (발표문 3쪽)

2. <표1> ‘한-만 대응어’의 비판적 검토

한국어와 만주어를 포함하는 소위 알타이어족의 공통조어를 재구하는 노력은 2800여 개의 단어를 재구한 Starostin et al. (2003)에서 집대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Vovin (2005)에서 이를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하의 내용은 Vovin (2005)의 기준을 참고하여 <표1>(발표문 6-7쪽)의 한-만 대응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²⁾

2.1. 존재하지 않거나, 형태소 분석이 누락되어 비교 자체가 어려운 형태(5개)

(6) ibu- (< yabu-), jen- (이상 존재하지 않는 형태), ala- (‘알-리다’의 동사 어근은 만주어 sa- ‘알다’에 대응), teliye- (‘달-이다’, 만주어형에는 사동형 접사가 없음), torgi- (*‘돌-이다’, 앞과 동일)

2.2. 필자가 대응을 확신하지 못하여 ??로 표시한 형태(14개)

2.3. 음 대응이 규칙적이지 않은 형태(30개)

2) 한편 Vovin (2005)에 대한 재반박은 Dybo & Starostin (2008)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Robbeets (2005)에서는 Korean, Tungusic, Mongolic, Turkic, Japonic 등 5개 어족을 비교하여 엄밀한 음운대응을 가지는 359개의 동원어를 제시했는데, 이 때 C1V1C2까지의 규칙적인 대응을 근거로 ‘이러한 음 대응이 계통적인 연관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만주어와 한국어, 단 두 개 언어에서 불과 1000여 년 전의 접촉으로 인해 ‘크레올어화’한 동형어를 비교한다면 이보다는 엄밀한 대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발표문에서 제시한 결과는 그렇지 않다. 모음의 대응은 차치하고, 첫 자음(C1)과 두 번째 자음(C2)의 대응이 <표2>(발표문 7-8쪽)의 규칙적인 대응에서 어긋나는 것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7) bu- 주-, dasi- 달-, dasihi- 달-기-/달리-, dasihiya- 듣-/뜨리-, dehe- 덮-, dende- 더느-/더디-, dengge- 더디-, dori- 돈-, etu- 옷, fehu-, feksi-, feku- 박초-/박구르-, fešše- 붓, fete- 푸-, fodo- 붓-, fushe- 붓-, fushu- 붙-, gai- 갓-, gosi- 괴-, heje- 굶-, hergi-, 얽/섞-, yabu- 니-, sinda- 실-, šorgi- 쫘-, siji- 시치-, simi- 썩다³⁾, tuhe- 듣-, turibu- 듣-이-, ulu- 르르-, yabu- 녀-

2.4. 지나치게 광범위한 의미 대응

2.3에서 비판적으로 소거한 49개의 음 대응을 제외하면, 58개의 동사 어간이 남는데, 이는 Lee & Ramsey (2011)에서 언급한, 한국어와 매우 닮은 만주어 동사 어간 (최소) 70개와 유사한 숫자이다.⁴⁾ 그런데 그 의미를 검토하면, 이들을 과연 두 언어의 상관성을 지지하는 증거로 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58개 예 가운데 <한청문감>의 번역을 기준으로 만주어와 한국어의 중심적인 의미가 일치하는 예는 불과 7개에⁵⁾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의미 대응을 설정하여, 상대 언어의 해당 동사가 가지는 주변적인 의미에도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만주어 hadu-는 정확히 ‘베다(割, to cut)’의 의미이며 <한청문감>에서도 ‘뫼다(割)’로 번역했는데, 발표문에서 음상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국어 ‘거두다’와 대응시킨 것은 무리한 의미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⁶⁾ 또 만주어 o- ‘되다’를 한국어 ‘오다’에 대응시켰는데, 만주어 o-는 결코 이동의 의미를 가지지 않을뿐더러, 한국어의 ‘되다’와 의미가 일치하기 때문에, 굳이 ‘오다’의 주변적인 의미에 대응시킬 필요가 없다. <한청문감>에 ‘말 나눈 대로 허다(信口說)’와 ‘빈 풀 헤쳐 늦타(攤芟草)’로 주석된 fe-를 한국어 ‘베다’와 연관시킨 것도 억지스럽다. 또 만주어 tafu- ‘오르다’를 한국어 ‘툭다’에 대응한 것도, ‘툭다’의 두 가지 의미를⁷⁾ 고려하면 마땅하지 않다. 만주어 다의어 tata- ‘당기다(중심의미)’의 여러 의미 가운데 한국어 ‘달-’에 해당하는 것은 없다. 나머지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중심적인 의미끼리 일치하는 대응이 적은 것은 이들의 형태가 우연한 유사성에 의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런 문제점들을 고려하면, <표2>에 제시된 한-만 자음 대응 가운데 상당수는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표2>에서 한국어의 ㄷ이 만주어에서 ㅅ로 대응되는 것으로

3) 발표문에서는 만주어 simi- ‘썩다’에 대해 “MK스미-”로 잘못 대응하고 있다.

4) Lee & Ramsey (2011)에서는 적어도 70개의 동사 어간 가운데 37개만 제시했다. “And at least seventy Manchu verb stems bear a close resemblance to Korean forms. Here is a selection of about half of those” (Lee & Ramsey 2011: 25)

5) fata- ‘뺏다’, fumere- ‘버무리다(攪拌)’, fushe- ‘부체질하다(搨扇子)’, hete- ‘(발) 걷다(捲簾)’, šabura- ‘조올리다(困了)’, saha- ‘(층층이) 뺏타’, tama- ‘담다(盛着)’ 등

6) 만주어에서 ‘거두다’에 대응하는 전형적인 동사는 bargiya- ‘곡식 거두다(收成) <한청문감>’이다.

7) 「1」 가파른 곳을 오르려고 매우 힘들여 더듬다. 「2」 틈이 있는 곳마다 모조리 더듬어 뒤지면서 찾다. (표준국어대사전 웹페이지(<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툭다” 검색)

다음과 같이 3개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8) 즈부랍- šabura-, 조이-/죄- šoyo-, ?줍- šufa-

이 가운데 ?(<표1>에서는 ??)로 표시되어 발표자도 확신하지 못하는 대응인 šufa-는 <어제청문감>에 *geren de neigen gaire be. šufambi sembi* ‘여럿에게 균등하게 받는 것을 šufambi라고 한다’로 설명되어 있고, 이것이 <한청문감>에 ‘출렴흐다(攢湊)’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줍다’의 의미로 대응시키기 어렵다.⁸⁾ *즈부랍-은 문증되지 않는 형태이지만 방언 자료 등을 통해 재구할 수 있는 형태인데, <한청문감>에서 šabura-가 ‘조올리다(困了)’로 번역되기 때문에 일견 타당한 대응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만주어 용례에서 ‘졸리다’에 해당하는 만주어는 amu(잠) šabura-의 연어로 나타나고, <한청문감>에서 šabura-는 ‘황망히 구다(張羅)’라는 의미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amu šabura-를 ‘(?)잠 졸립다’로 해석할 여지도 있지만 ‘(?)잠이 (열심히) 작용한다’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šoyo-는 <한청문감>에 ‘구기다(抽縱)’로 번역되어 있는데, <어제청문감>의 설명인 *yaya jaka huterere iküre be. šoyombi sembi* ‘무릇 사물이 구겨지고 줄어드는 것을 šoyombi라고 한다’에서 볼 수 있듯이 자동사로 볼 수 있는데, ‘조이-/죄-’와 같은 타동사로 대응된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 따라서 이렇게 의심스러운 의미 대응을 바탕으로 성립된 2-3개의 음 대응을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기타 의문점

(9) “㉠ 한국어 어두 자음의 ‘냐~니’에서의 구개자음 ‘n’가 만주어에서는 ‘y’ 혹은 ‘Ø’로 반영되기도 한다. (예, 녀-[行]~yabu- / 니-[行]~ibu)” (발표문 8쪽)

이러한 기술은 이전 시기의 만주어에 소위 ‘n-구개음화’에 따른 탈락이 있었을 가능성을 전제 하지만, 실제로 만주어에 (어두 위치를 포함하여) ni- 음절이 제약없이 나타나는 사실과 모순된다.

(10) “중세 한국어에서 어말자음에서 ‘ㄷ~ㅌ’의 쌍형으로 실현되던 단어들이 만주어에서 ‘t~th’의 쌍형으로 실현되는 양상이라든지 한국어에서의 ㄷ불규칙 용언의 두 가지 이형태(결~~결-)가 만주어에서 각각 d계열(hiyada-), l계열(hiyala-)의 어말음절로 실현되는 사례들은 우연의 일치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들이다.” (발표문 9쪽)

‘ㄷ~ㅌ’ 쌍형의 예로 든 kūtambi와 kūthambi는 모두 유기음인 -t-를 어중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한국어의 ㅌ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청어노걸대>에서 tutafi가 ‘투타피’로 전사된 것처럼). 따라서 발표문의 주장대로 이들이 각각 한국어 ‘흐다~흠다’에 대응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일반적인 대응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hiyala- ‘아히 담아 업다(絡繫背着)’와 hiyada- ‘네다(織補)’는 둘 사이의 의미 대응도 확실하지 않은데, 더 나아가 한국어 ‘결다(~결다)’와 대응한다고 보기

8) 더구나 한국어 ‘줍-’은 16세기 이후의 ‘주어, 주으면’과 같은 ‘줏-’의 ‘ㅅ’ 불규칙 활용형이 ‘줍다’의 ‘ㅂ’ 불규칙 활용형인 것으로 오인되었기 때문에 잘못 생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마땅한 비교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우리말샘’ 웹페이지 (<https://opendict.korean.go.kr/main>) “줍다” 검색)

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만주어에 hiya ‘태 짓는 어레; 侍衛’가 단어로 존재하고, 동사화 접사 -la나 -da를 이용한 파생이 생산적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hiya-la-와 hiya-da-로 분석할 가능성이 높은 데 반해, ‘결-(~결-)’는 단일한 형태소로 보아야 하므로 더욱 대응시키기 어렵다.

참고문헌

- 박상철(2020). 지역언어학의 관점에서 본 만주어 -rA와 몽골어 -QU의 유사성. 언어학 86.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3-29.
- 池上二良(1978). 滿洲語とツングース語—その構造上の相違点と蒙古語の影響—. 第6回國際學術講演會. 韓國學術院.
- Blažek, V., Schwarz, M., & Srba, O. (2019). *Altaic Languages. History of research, survey, classification and a sketch of comparative grammar*. Masaryk University Press.
- Dybo, A., & Starostin, G. (2008). In defense of the comparative method, or the end of the Vovincontroversy. *Aspects of comparative linguistics* 3, 109-258.
- Hübler, N. (2020). Typological profile of the Transeurasian languages from a quantitative perspective. In *The Oxford guide to the Transeurasian languages* (pp. 145-159). Oxford University Press.
- Lee, Kimoon & Ramsey, S. R. (2011). *A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ppe, N. (1965). *Introduction to Altaic Linguistics*. Wiesbaden: Otto Harrassowitz.
- Robbeets, M. (2005). *Is Japanese Related to Korean, Tungusic, Mongolic and Turkic?* (Vol. 64). Otto HarrassowitzVerlag.
- Robbeets, M. (2010). Transeurasian: Can verbal morphology end the controversy?. *Transeurasianverbal morphology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Genealogy, contact, chance*, 81-114.
- Robbeets, M., & Bouckaert, R. (2018). Bayesian phylolinguistics reveals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Transeurasian family. *Journal of Language Evolution*, 3(2) 145-162.
- Starostin, S. A., Dybo, A., Mudrak, O., & Gruntov, I. (2003). *Etymological dictionary of the Altaic languages*. Leiden: Brill.
- Vovin, A. (2005). The End of the Altaic Controversy In Memory of Gerhard Doerfer. *Central Asiatic Journal* 49(1), 71-132.